


한국농축산연합회

성명서

발송일 : 2021.09.28

▶제공자 :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▶담당자 : 임병희 집행위원장(010-4230-9847)
 ▶주 소 :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길 180,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B동 2F
 ▶전 화 : 041)553-5562 ▶팩스 : 041)041-553-6654 ▶이메일 : krice@korearice.net

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

부족한 지방재정 보완, 농촌 회생의 마중물 역할 기대
 지역 특산물 판매와 농축산물 소비촉진에도 도움될 듯

■ 한국농축산연합회는 ‘고향사랑기부금법’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.

■ ‘고향사랑기부금법’은 개인이 현 거주지 외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,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금의 30% 범위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.

■ 한국농축산연합회는 ‘고향사랑기부금법’ 통과로써 부족한 지방재정의 보완으로 2020년 기준 228개 기초 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기를 맞은 105개소(46.1%)의 농산이촌지역을 되살리며 지역특산물 및 농축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■ 이미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'고향납세제'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 이후 2013년부터 기부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, 지난해에는 6725억엔, 우리 돈 약 7조15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다. 고향세 수입이 자체 수입보다 많은 지자체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. 일본 정부가 공제 상한액을 늘리고,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쌀 등을 답례품으로 보내면서 기부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.

■ 우리 역시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높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다면 미지 않아 큰 성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.

■ 다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‘법’ 통과를 위한 활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부자가 동의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. 즉, 지속적인 기부활동 및 상향을 위해 기부금의 이용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잘못 사용됨이 없고 기부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긍정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업심의 및 평가홍보가 필요하다.

■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다시한번 ‘고향사랑기부금법’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하며, 고향을 위해, 농산이촌을 위한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여 선의로 기부한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그 용도를 한정하고 총액과 사용처를 밝히는 등, 기부금 투명운영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한다. 더불어 지역 특산물 및 농축산물 등 답례품의 수급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.

한국농축산연합회

※ 회원단체(30개) : 고려인삼연합회,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, 대한양계협회, 대한한돈협회, 전국농업기술자협회, 전국한우협회, 한국4-H본부, 한국4-H청년농업인연합회, 한국관광농원협회, 한국낙농육우협회,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,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,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,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,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,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, 한국버섯생산자연연합회, 한국새농민회,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,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,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, 한국양봉협회,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, 한국오리협회, 한국육계협회,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, 한국인삼협회, 한국종축개량협회, 한국토종닭협회, 한국화훼협회(가나다 순)